

‘대홍수 전야’ 방콕, 도심도 침수되나

28~31일 만조때 최대 고비... 오늘부터 공휴일 선포

태국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방콕이 상류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대규모의 강물로 도심까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일락 친나와 총리는 25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상류지역에서 대규모의 강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 방콕 외곽의 홍수 방지벽이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락 총리는 그동안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이강 인근과 방콕 외곽의 침수 가능성은 계속 경계해왔으나 도심 침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쿰판 방콕 주지사는 “차오프라이강의 수위가 25일 위험 수위인 2.35~2.4m에 달했다”면서 “바닷물 만조 때인 주말에는 차오프라이강 수위가 홍수 방지벽(2.5m)보다 높은 2.6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수쿰판 주지사는 86km에 달하는

강 주변의 홍수 방지벽을 더이상 높게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강 주변의 주민들은 홍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수 전문가인 로온 박사는 “방콕으로 유입되는 강물은 60억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방콕은 1일 4억 제곱미터의 강물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다”며 “모든 물을 바다로 배출하는데 3~4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콕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서는 이미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방콕 북부의 돈므앙 공항은 활주로가 침수되면서 25일 오후부터 폐쇄됐다. 돈므앙 공항은 하루 100여편의 비행기가 이용하는 태국 최대의 국내선 공항이다. 국제 공항인 수완나품 공항은 아직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방콕내의 저지대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유소와 은행 지



점, 편의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정부는 만조 때인 28~31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홍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5일 간을 공휴일로 선포했다.

태국은 지난 7월25일부터 중·북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366명이 숨졌고, 피해 규모가 최대 5000억바트(18조3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석 실종 9일째 악천후 수색 장기화

박영석 원정대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여 넘었으나 수색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은 “현장에 위험이 그대로 있고 기상이 급변하는 등 조건이 열악하지만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안나푸르나 남벽 출발점 근처(해발고도 5,900m)에서 위성전화로 고신하고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 실종 시간은 이날까지 8일이 이르렀다.

연맹은 원정대가 기능성 의류를 지니고 5~6일치 식량을 가져간 까닭에 안전지대로 피신했다면 얼흘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기상악화로 수색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적지 않은 당



지난 18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남벽 근처(해발고도 5,800m)에서 마지막 위성전화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박영석 원정대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해 크레바스로 들어가는 수색대. (대한산악연맹 제공)

“기능성 의류·5~6일치 식량 지녀 안전지대 피신뎌 10일 생존 가능”

구조대·셰르파 대거 가세 수색 가속

촉각을 드러내고 있다. 연맹은 “특별한 진척이 없고 수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탓에 구조대를 포함해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은 구조대와 셰르파들이 대거 새로 가세하면서 이날도 계속할 계획이다.

연맹은 카트만두에서 날이 밝는 대로 헬리콥터를 현장으로 보내 근처 마을이나 베이스캠프에 대기하는 셰르파와 구조 대원들을 실종 추정 지점 근처로 나를 계획이다. 고산 등반가 김재수, 김창호 씨, 구조 전문요원 진재창, 강성규, 구은수 씨 등이 새로 가세하고 셰르파도 대거 교체돼 모두 19명이 수색에 나선다.

박영석 대장, 강기석, 신동민 대원의 가족들도 기상 여건 등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헬리콥터를 타고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들어가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 ‘난항’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시범지구 후보지 지정 계속 지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암초’에 걸려 벽격거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친수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연 내 2~3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안에 후보지 지정 신청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

조원 회수도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 조성하는 친수구역 우선시범지구 지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7~8월경 친수

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연내에 2~3곳의 우선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수자 원정책실내에 친수공간과 별도로 신설하고 지구지정 등에 필요한 친수

구역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던 친수구역 조성지침이 지연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성 등을 우려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친수구역 조성 지침 수립 용역이 끝나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규제심사가 끝나는 이달 말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공이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일려야 올해 말에나 나온다. 수공은 이 경우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안침식 대비 연안 완충지역 도입

중도 생태갯벌 등 지역대표 브랜드 육성

기후변화와 난개발 등에 따른 해안 침식과 침수 등에 대비해 연안해역 완충 구역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

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2차 계획의 핵심 정책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 대응 ▲연안공간 계획적 관리 강화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관장비 사업 추진 ▲공유수면 매립 이력 관리 및 공공성 강화 등 5가지이다.

국토부는 우선 날로 늘어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른 연안 피해를 예방하고, 인위적 방호시설 난립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구와 갯벌 등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 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지정 구역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 주요 연안 157곳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결과 59%에서 우려할만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5년까지 264억원을 투입, 해수욕장과 해안사구, 갯벌 지역의 침식·퇴적 실태와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백령도 물방, 중도 생태갯벌, 서천 해양생물자원관 등 지역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맞춤형 생태관광도 활성화한다.

/연합뉴스

남해안관광·외식 등 내수활성화 과제 추가

정부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외식 산업 진흥 등 내수 활성화 과제 9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재안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 96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신규로 9개 과제를 발굴해 추

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과제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11월 중으로 민간투자가

쉽고 사업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하며, 개발규제를 합리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외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외식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경쟁 촉진,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자 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고 공공부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연합뉴스

http://bike.kjmedia.co.kr

자전거와 함께 농촌사랑을

2011 Green 자전거축제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

종 목 | 거북이자전거행진(비경쟁 4.5km), 로드레이싱(경쟁 50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KFA 한국마사회

교통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안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 게시판

거북이자전거행진

-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 오후 3시 출발, 오후 4시 30분 종료
- 집 결 : 광주상무공원(출발, 끝까지점 등일) 오후 2시까지 출발선 대기
- 코스 : 비경쟁 퍼레이드 4.5km
-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광주광역시청 - KBS방송국 - 상무병원삼거리 - 여성발전센터 - 서부경찰서 - 상무시민공원 도착 (※제한시간 : 오후 4시 30분까지)
- 참가비 : 무료(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참가신청 마감)
- 지급품 : 참가기념품(추후 공지), 배번호(현장배부)
- 비경쟁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순위 및 기록결정은 없습니다.
- 시상내역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특별상(행운상, 포도제닉상)

로드레이싱대회

- 일 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전 8시 30분 출발
- 집 결 : 광주상무공원(출발, 끝까지점 등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발선 대기
- 코스 : 경쟁 50km (별첨지도 참고)
-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동신대학교차로(우) - 대신삼거리(우) - 평동역 - 서창교 - 도착 (광주상무시민공원) ※제한시간 : 2시간 30분 (11시 주행 종료)
- 참가비 : 1인당 30,000원
 - 광주·전남의 참가단체(10명이상)에게는 팀당 여비 10만원 지급
- 지급품 : 참가기념품(추후 공지), 종식, 간식, 배번호(2개1조), 기록측정점 - 배번호 기록측정점 사용에 배송해 드립니다.
- 기록측정 : 기록 측정용 칩 사용
- 순위 및 공식기록은 넷타임(기록칩)으로 결정, 공지
- 시상내역
 - 개인(연령대별 구분 각 부문 시상, 상급+상장+트로피)
 - 남자4개부문 :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4위(10만원), 5위(5만원)
 - 여자2개부문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4위(5만원), 5위(5만원)
 - 단체
 - 참가단체상 : 다수참가팀 순으로 5팀, 팀당 10만원
 - 원거리참가단체 여비지원 : 10명이상 팀 (광주,전남 외 지역, 팀당 10만원)
 - 특별상(행운상, 포도제닉상)

농촌사랑축제

-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이틀간
- 장 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 내용 : 농·축·수산물 홍보관 운영
 -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 (현장에서 푸짐한 행운상, 이벤트상을 드립니다.)